





평남평원군(平南平原郡) 순안(順安) 식교회 부속학교(順安安恩會食敎會附屬學校)

무해할까? 하야 일기 격렬한  
 차을가지었다는데근근말피라  
 는아이는그날부터정신을  
 모자간다고평을인이아코었다

뜻업지殺人한  
韓勒奉은十五年

學으로 이의 분개한 두 수민을  
 은 일케 하라 하야 마땅치 아니  
 화를 면치 못하도 일케 하라 하  
 화를 면치 못하도 일케 하라 하

『오! 네가, *Cherryblossom* 최치기를 아다 보며 그 가리 맛입  
준대다 들었었다.  
『알마가 저 알바가…… 알바가  
이거 사주었어!』

京都府社稷洞二一七番地  
代電話  
竹内洋行藥品部  
振替 京都 四六生